



12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전주매일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음 10월 13일) 제29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농특산물 온라인 판촉 '맞손'

전북도-카카오커머스 지속가능 상호 협약체결 수삼 카카오 '특달' 진행

우수 청년농 공동시장 카카오 직원 농촌관광 미래 상생방안 추진키로

전북도가 국내 대표적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주)카카오커머스와 상호 협력을 다짐하면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도는 (주)카카오커머스,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6일 카카오커머스 본사(관교 소재)에서 '전북생생장터'와 카카오커머스의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주)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다졌다. 세 기관은 전북도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생생장터'



전북도는 (주)카카오커머스,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6일 카카오커머스 본사(성남 관교 소재)에서 전북생생장터와 카카오커머스의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의 카카오쇼핑 입점과 다양한 농특산물 기획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북 기반 전자상거래를 통해 2020년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 매출 1위(5,735억원), 2021년 7월 이용자수 3,500만명을 달성한 대표적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전북도와 (주)카카오커머스는 협약식

이 열린 16일부터 전북 수삼의 카카오 '특달'을 진행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수삼 농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청년 농업인의 전북도-카카오 공동시장 및 교육 지원, ▲카카오 직원을 위한 전북 농촌관광·농산물 특별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과 도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민메신저 카카오북 플랫폼을 활용해 전북생생장터의 브랜드와 전북 농업·농촌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온라인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농특산물의 판로 다변화는 물론, 지역과 기업 간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협력이 이뤄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식품 온라인몰을 시작해 거시마켓(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운영했다. 최근 '전북생생장터'로 새로 개편해 전북 농산물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착한 수능 시험지 이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6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시험지를 옮기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식품진흥원, 오늘 '대체육 시식 품평회'

한국식품산업원(이사장 김영재)이 대체육 시식품평회를 17일 개최한다. 식품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11개의 산·학·연 협의체가 참여한다. 이번 시식품평회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대상으로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트렌드와 성장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대체육 시식메뉴는 국내외 10개사 16개 제품으로 구성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네오크레미의 대체육 패티 신제품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A-벤처스'에 선정된 대체육 스타트업 WEMEET(위미트)의 신제품도 소개된다. /역산=이특훈 기자

전북 스마트팜 역량 드높이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3회 인공지능(AI) 온실자동화대회' 선발전에서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출신 '스마트팜 창업교육생'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해 전북도의 스마트팜 역량을 드높였다. 지난 13일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와게닝겐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CVA팀(Crop Vision and Automation)'이 최종 예선 1등을 차지했다. CVA팀은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교육생인 류희경 크로프트(Croft) 대표를 팀장으로, 최연규(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온실자동화대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보다 농사를 잘 짓는 인공지능 작물인 오이 재배로 시작해 2020년 2



화에는 토마토, 그리고 2021년은 상추 재배를 대상으로 겨룬다. 일반인에게 아직 이름도 생소한 이 대회에는 스마트팜에 관한 세계 각국의 유명 대학(MIT, Stanford, Cornell, UC Davis)과 회사(KBASF 등)가 총망라해 참여한다. 세계적인 스마트팜 강국인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대회다

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출신 'CVA팀', AI 온실자동화 1위

실제 이번 대회 1등을 차지한 한국 'CVA' 팀장인 류희경씨는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과정(3기)을 이수하면서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실력을 배양했다. 또한 이들을 지원한 전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의 노력 등이 더해져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다. 한편, 최종 본선은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온실에서 진행된다. 5개팀(한국 2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실제 온실 상추재배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유호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물러설 때가 더 중요"

박성일 완주군수, 3선 불출마 공식화



박성일 완주군수가 3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군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지난 7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호남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추진, 삼봉웰빙시티·복합행정타운 등 명품 정주거안 조성, 테크노밸리 산단 등 첨단 산업단지 메카 구축,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소득과 삶의 질 높은 으뜸도시 완주를 어느 정도 실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군수는 또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대목도 있었지만 두 번의 임기 동안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 몸과 영혼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나설 때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며 "여기까지가 완주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내비쳤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완주 발전에 힘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